"문 꼭꼭 닫아도 귀가 먹먹해요"

광주공항 주변 비행기 소음 전국에서 가장 커

송대동 92·우산동 91웨클… 군항공기 운항 많은 탓

공군비행장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광주공항 주변지역이 전국에서 소음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2개 지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록을 분석한 결과, 광주가 평균 소음 83.87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군산공항 83.36웨클 ▲청주공항 80.57웨클 ▲원주공항 78.7웨클 ▲대구공항 78.47웨클 ▲제주공항 73.55웨클 등의 순이었다. 가장 조용한 곳은 54.65웨클을 기록한 양양공항 주변지역이었다. 전국 평균 항공기 소음도는 71.56웨클이었다.

광주공항은 지난 2009년 83.1웨클보다 평균소음이 0.77웨클 높아졌으며 광주공항의 송대동 지점과 우산동 지점은 91.5웨클·91.4웨클을 각각 기록해 전국에서 소음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 가장 낮은 지점은 76.5웨클을 기록한 치평동이었다.

광주공항 주변에선 우산동·덕흥동·치평동·송대동·본덕동·신촌동·송정동 등 7개 자동 소음 측정망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개 지점은 소음피해 또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광주공항의 소음이 다른 공항에 비해 소음이 심한 이유는 군항공기의 운항횟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균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을 기록하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국강현 위원장은 8일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주민 쉼터와 복지공간을 마련해주고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조사하는 한편, 소음피해 완전 해소하기 위해 공군기지를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해 1종(95웨클 이상), 2종(95~90), 3종 가지역 (90~85웨클), 3종 나지역(85~80웨클), 3종 다지역(80~75)으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제1종 구역에 대해서는 이주를, 2·3종 구역은 방음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지원 등을 내놓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국 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 현황 (단위:WECPNL)

공항	측정지점 개소	연평균 항공소음도
광주	7곳	83.87
군산	5곳	83.36
김포	13곳	69.60
김해	7곳	72.05
대구	7곳	78.47
무안	3곳	60.83
사천	7곳	66.8
양양	6곳	54.65
여수	6곳	65.56
울산	6곳	63.9
원주	6곳	78.7
제주	7곳	73.55
청주	6곳	80.57
포항	6곳	69.98

(측정년월:2010년 1월~12월)

▲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한다.

풍년 기원하며…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든 8일 화순군 도암면에서 한 농민이 풍년을 기대하는 듯한 해맑은 표정으로 모판을 나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학생 75% 사교육 받는다

광주 45%·전남 46% "학업 스트레스"

호남통계청, 청소년 통계

광주 지역 초·중·고생 평균 75%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도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사교육 참여율은 66%, 스트레스 인지율은 광주와 비슷했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 청소년 통계(광주·전남)'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광주 74.5%, 전남 65.9%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광주 88.8%와 전남 83.9%로 중학생(75.2%, 64.5%), 고등학생(55.4%, 4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광주 21만3000원, 전남 16만8000원이었다.

또 2009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광주 44.7%, 전남 45.8%였다. 여학생(광주 49.3%, 전남 53.9%)이 남학생(광주 40.5%, 전남 38.5%)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5세 이상 재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광주 50.5%, 전남 52.8%로 전국 평균 46.3%보다 높았다.

2009년 청소년 흡연율은 광주 11.9%, 전남 12.8%로 전국 평균(12.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청소년 음주율은 각각 18.2%와 19.9%로 전국 평균(21.1%)보다 낮았다.

2009년 청소년 비만율은 광주 6.8%, 전남 7.1%로 전국 평균(8.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증가 추세인 국제결혼 가정 학생 수는 2010년 현재 광주 705명, 전남 2892명으로 이 가운데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각각 94.0%(663명), 97.9%(2832명)를 차지했다.

한편, 2011년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10~24세) 인구 비율은 각각 22.5%와 19.3%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고교 1년생 80% "수학 선행 사교육"

고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8명이 중학교 때 수학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함께 전국의 고1 8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중 80.7%가 수학 선행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자립형 사립고(97.2%)와 과학영재고(95.9%), 외국어고(93.8%) 등 상위학생들이 몰리는 곳의 수학 선행학습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일반고도 72.6%에 달했다. /연합뉴스

해외 서버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7억여원 챙긴 일당 둘 구속

광주경찰 사이버수사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장모(41)씨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박모(38)씨 등 운영자·프로그래머·대포통장 매매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빌라 등 3곳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10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 팔로워에게 사이트를 광고해 회원 3300여명을 모집했으며 사이트들을 통해 베팅된 액수는 7억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당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한 공식 스포츠토토와 달리 최소 2000원에서 2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하되, 여러 경기를 묶어 베팅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ID로 접속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해저축銀 감사 안진 회계법인

檢, 광주사무실 압수수색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은행 회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안진 회계법인 광주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안진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억지로 맞춰놓고 감사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 감사 결과는 전자공시되는데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영업정지되기도 한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으로서는 입·출금을 결정하는 판단 자료로도 삼아 금융업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검찰은 안진이 수년간 보해저축은행의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감사 비용을 지급하는 은행 측의 요구를 결과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대가로 정상적인 비용 외에 뒷돈이 오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진 등 임직원과 대출 차주, 금감원,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했던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으로까지 확대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면 회계 법인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 불법행위의 정황도 나왔다"며 "보해저축은행은 경영진, 회계, 감독기관, 부실 대출 차주 등 모두가 합세한 '비리 백화점'"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빈차털이 현금 3천여만원 훔쳐

나주경찰,40대 구속

나주경찰은 8일 전국을 돌며 차량 안의 금품을 훔친 이모(4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6일께 충남 예산군 한 비닐하우스 앞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현금 130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광주·전북·강원·경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20회에 걸쳐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혼자 차를 타고 떠돌며 현금이 많은 영업용 차량과 가방 등이 보관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고물상에 웬 연막탄?

동부경찰 조사 나서

광주의 한 고물상에 누군가 연막탄을 맡기고 사라져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8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가 길이 15㎝가량 연막탄 2개와 상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며칠 전 한 남자가 고물상에 와서 고철 등을 팔고 '위험한 물건'이라며 주기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연막탄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군부대와 함께 군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조사하고 있으며 연막탄을 고물상에 맡긴 사람을 찾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 영장

순천경찰은 8일 모기관 단체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께 "B(67)씨가 모 단체 전남도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상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보조금을 횡령했으며 학력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이 단체 중앙회장과 전국 시군회장 등에게 배포한 혐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검찰, 국기모독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를 한 한명숙 전 총리를 보수단체 3곳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는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놓고 그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 헌화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모녀 세명이 대형마트서 밥솥 슬쩍

쌍나팔

○…광주서부경찰은 8일 대형마트에서 몰래 전기밥솥을 훔쳐 나온 A(여·64)씨와 A씨의 큰딸(39), 작은딸(38) 등 모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딸들은 지난달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모 대형마트 2층 전자제품 매장에서 각 10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2개를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가 욕심을 느껴 전기밥솥을 카트에 실어 몰래 빠져나온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9급 우편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공무원 합격설명회
당일접수자 수강료 20% 교재 30%할인
'11년 6월 22일(수) 14:3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 고급노트증정
종합반 교재5권 20만원 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